

컬러풀 신안

기고



박형호
신안군 부군수

“무슨 박쥐이름이 이래. 붉은박쥐가 뭐야! 뭐 좋은 이름없어요?. 다시한번 찾아보세요.”

국장이 결재를 반려한다. 함평군으로 보낼 희귀동물인 붉은박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고였다.

“아니 본래 학명이 붉은박쥐인데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인지” 당황했다. 박쥐가 동굴 속에서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야외에서 찍힌 사진엔 황금색이다. 어릴적 만화영의 주인공인 황금박쥐가 생각났다. 결국 붉은박쥐 옆에 일명으로 황금박쥐를 첨가, 결재를 마쳤다. 그 덕분에 지금은 붉은박쥐보다 황금박쥐로 더 잘 알려졌다. 20년 전 전남도청이 광주 충장로에 있던 시절이다. 그때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네이밍 해 준 분이 고영길 해양수산환경국장이다.

함평은 이 컬러 네이밍을 잘 활용했다. 당시 가치로 28억원이란 거금을 들여 황금박쥐 모형을 만들었다. 15년이 흘러 지금은 금값만 5배로 커진 140억이란다. 올 나비축제 기간 동안 황금박쥐 전시관엔 100억원대 황금박쥐 조형물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쇄도했다. 붉은색을 황금색 컬러로 네이밍을 바꾼 결과다.

요즘도 컬러마케팅에 올인하는 지자체가 있다. 신안군이다. 시작은 이렇다. 안좌면 박지도 김매굴 할머니의 소망이 “살아생전 두 발로 걸어서 육지로 나오고 싶다”였다. 할머니의 소식을 접한 신안군은 반월도와 박지도를 잇는 목재 연결다리를 놓았다. “어렵사리 다리는 연결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섬을 찾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섬 전체에는 보라(purple)색인 왕도라지와 꿀꿀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이 점을 착안해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물들여 보자고 뜻을 모았다. 목고, 마을지붕, 담장은 물론 보라색 꽃이 피는 라벤더, 접시꽃, 버들마편초로 가꿨다. 할머니 할아버지 팬티도 보라색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열정 덕분에 반월박지도

는 전국 핫플레이스가 됐다. 유네스코관광 광기구(UNWTO) ‘세계최우수 관광마을’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신안군청 로비엔 이 지역 안좌출신 김환기(1913~1974)화백의 작품 ‘영원의 노래’가 설치돼 있다.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이며 한국 미술품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된 10개 작품 중 9개가 김화백의 작품이다. 이 중 ‘우주’는 우리나라 최초 100억대를 넘어선 131억원에 거래됐다. 그의 호 수화(樹話)는 ‘나무와 이야기한다’는 뜻이다. 수화의 DNA가 신안군에 이어졌을까. 섬 곳곳 우람한 숲정원을 만들었다. 한 그루 나무를 심더라도 숲이 되고 그늘이 되는 큰 나무를 심었다. 대표적으로 도초 팽나무숲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본 그 나무다. 남해안을 다 뒤져 100년된 742본의 팽나무를 찾았다. 나무를 심을 때도 전문가에 자문을 구했다. “배수가 안되고 소금기가 많은 뽕밭에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썩어 고사된다”는 의견을 주며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방법을 찾았다. 심을 곳 10리 전 구간을 물빠짐이 좋은 흙으로 뚫방을 쌓고 수분공급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나무위쪽까지 설치했다. 그 아래엔 보라색 수국으로 덮었다. 멀리서 보면 ‘담양의 관방제림’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산림청에서도 이 조성 사례와 생육상을 높게 평가해 ‘모범도시숲’이란 인증서를 증정했다.

도초 팽나무 숲은 시작에 불과하다. 신안군은 ‘섬에 1정원’ 조성을 군정목표를 삼았다. 식물정원은 무지개 빛 중빨강 노랑 파랑 보라색 정원을 만들었다. 빨강은 병풍도 맨드라미, 노란색은 선도의 수선화, 파란색은 도초 수국, 보라색은 퍼플섬이다. 무지개에는 없는 하얀색은 장산에 ‘화이트정원’을 만들어 ‘컬러풀 신안’을 보여 줄 계획이다.

대형 수목정원은 도초 팽나무 숲정원의 입자도 붉은 색 ‘홍매화 정원’이 있다. 백양사 고불매와 화엄사 홍매가 고고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입자 대광해수욕장 홍매는 광활한 규모의 단아함과 정갈함을 전해준다.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크릿가든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태산목의 ‘매그놀리아 정원’과 향기가 은은해 치유효과가 높은 ‘은목서 치유 숲길’을 증

도에 만들었다. 전국 어싱길은 황토길을 걷지만 이 은목서 치유숲길은 부드러운 모래밭을 맨발로 걷는다. 파도가 치면서 ‘소금기가 있는 신선한 음이온’을 무한 공급한다는 건 덤이다.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염기성 음이온 때문이다. 많은 나무를 심다보니 제주와 전국의 오래되고 귀한 나무는 신안으로 모여 들었다. 주민들이 우스게 소리로 ‘군수님! 인자 나무 그만 심읍시다. 섬이 까라 앉겠소!’라며 웃는다. 각자 숲은 크거나 가치로 봐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유럽 정원을 정형식 프랑코정원과 자연풍경식 영국정원으로 나눈다. 정형식 정원은 좌우대칭을 중심으로 꽃과 작은 나무를 배치한 주변에 익숙한 정원이다.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규칙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 반면 풍경식 정원은 시야가 트인 잔디밭에 큰 나무와 주변 경관을 숲길을 이용 정원으로 풀어 들인 차경기법을 사용한다. 신안 정원은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풍경식 숲정원을 택했다. 주변 갯벌과 바다풍광이 있어 굳이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숲정원 성공엔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희생이 있다. 이들은 의식도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다. ‘섬에 수백억원짜리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아름답고 섬 숲정원을 만드는 게 신안에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신규 채용도 행정보다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토목과 녹지조경 등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숲정원 조성·관리하는 녹지직 공무원만 43명이다. 광역 시·도와 전국 시·군·구와 비교해도 최다 규모다. 성실은 기본이다. 이른 새벽 정기선을 타고 숲을 둘러보고 출근하는 직원도 있다. 예술가 기질도 장착했다. 수화 김환기 화백이 사용한 점화의 번짐기법을 활용하는 느낌이 든다. 이를 테면 1004개 섬에 조성된 정원 하나하나를 ‘점’으로 보고 10리길 숲길을 선으로 연결해 궁극적으로 세계최대 규모 ‘섬 국가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그렇다. 단언컨대 이들의 열정과 작은 힘이 신안의 미래를 이끈다. 신안이 ‘인구소멸 지역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틀렸다. 이들이 있는 한 소멸이 아닌 ‘컬러풀 불멸 신안’이 될 것임을 믿는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청소년 마약 문제

발언대



문흥진
광주 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 경정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 바 ‘마약음료 시음’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학원가 고등학생들에게 기역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 중이라고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액체를 마시게 한 후,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연락해 ‘우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마약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마약조직이 검거됐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믿고 있었던 터라,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 당국, 정치권에게까지 경각심을 던져주었다.

특히 지금까지 언론보도 방향 등 국민적 관심사는 이슈적 성격이 강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대중들은 마약이 어떻게 유통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사실 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마약은 특정한 일부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5년마다 실시하는 마약류 실태조사에서도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할 정도로 청소년과 마약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인식돼왔던 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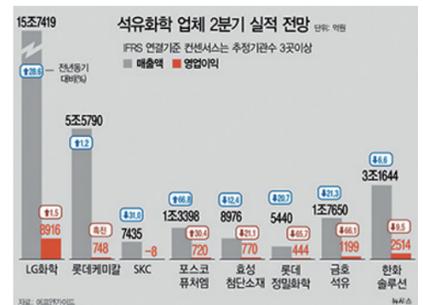
또한, 작년 9월에 발각된 속칭 ‘텔레그

램 마약방’ 사건의 마약 유통 총괄책임자가 고교 3년생이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SNS, 메타버스, 가상화폐 등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얼마든지 마약범죄를 주도할 수 있고, 판매책 환전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유통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주위의 관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청소년기는 마약에 대한 노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처음부터 마약을 해보아겠다는 마음보다 “한 번 해볼래?”,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라는 식의 가벼운 권유로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광주 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학생들 상대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 특별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경찰학교’ 체험교육을 통해서도 마약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서구와,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마약범죄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예방활동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들마저 마약범죄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에게 강한 책무를 부여한다. 청소년과 마약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민·관·경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이닝 소파석 (키보드/발목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충장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본관(1층)입구

▶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유,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범죄도시3
2관	귀공자 스파이더맨: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3관	엘리멘탈/나비효과
4관	귀공자
5관	스파이더맨: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인드림
6관	범죄도시3
7관	귀공자 스파이더맨: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8관	범죄도시3/수라
9관	플레이스 / 트랜스포머:비스트의 서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Volume 3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범죄도시3

시원하게 싸 숨어버린다!

5월 31일 극장 대개봉

엘리멘탈

5월 14일 극장 대개봉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